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선정평가 종합심사평

2019 콘텐츠원캠퍼스 구축운영 사업은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교육 협력 체계(컨소시엄)를 선정,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개발 지원과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4개 컨소시엄 선정과 지원에 이어 올해는 자유공모 5개와 지역공모 10개로 선정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올해 공모에는 다양한 프로젝트와 관련 교육 운영을 제안한 12개의 컨소시엄(자유공모 9개, 지역공모 3개)이 접수하였으며, 선정평가는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합하고 ‘협의·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대학교육’과 ‘문화콘텐츠’, ‘뉴미디어’ 그리고 ‘금융’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평가지원팀의 후보자 추출(3배수, 21명)과 섭외를 거쳐 최종 7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평가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인은 제출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수행컨소시엄 및 사업수행능력’, ‘융복합 콘텐츠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기대성과’, ‘사회적 가치’ 등의 구분지표와 그에 따른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현 평가지침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점·최저점 배제 후 평균’에 의거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하였고 해당점수 70점 이상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을 하였습니다.

평가위원단은 ‘전반적으로 신청 컨소시엄들의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계획 내용이 양호하여, 향후 관련성과가 기대되나, 지역공모의 신청건수가 저조한 점은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으며, 모든 평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유공모 5개, 지역공모 2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본 선정평가는 더욱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평가개선 사항에 따라 ‘공정평가 담당관’이 함께 배석되었습니다.